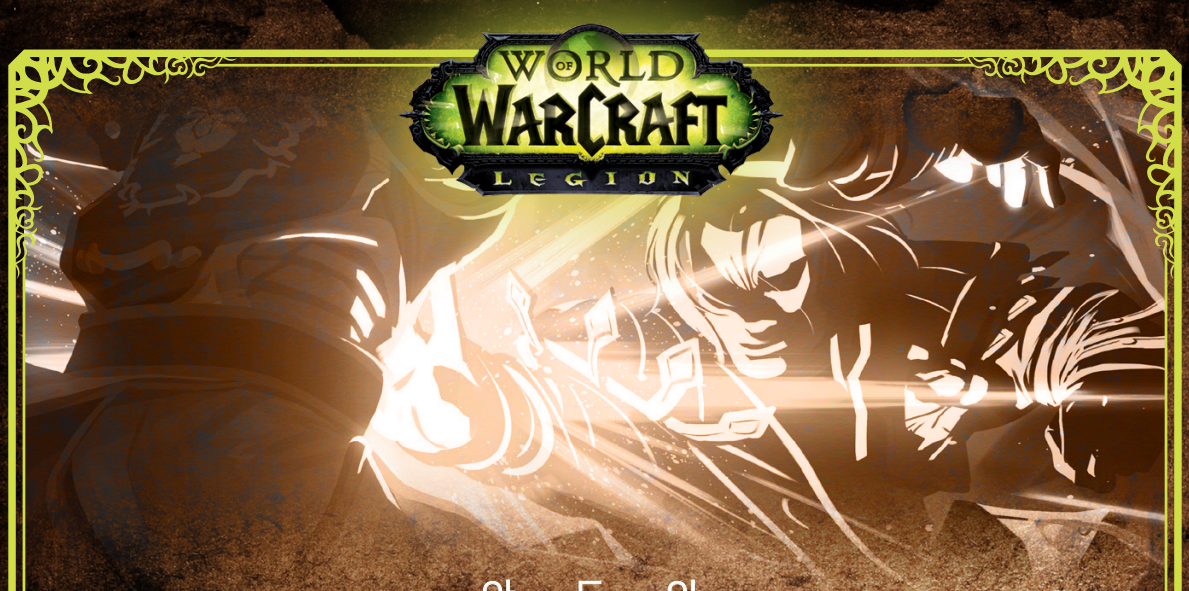
안두인 늑대의 아들

ROBERT BROOKS · NESSKAIN



안 두 인

늑대의 아들

글
ROBERT BROOKS

번역
YOOSHIN YANG

그림 및 채색
NESSKAIN

식자
JIHYE SOPHIA HONG

아트 편집
LOGAN LUBERA

편집
ROBERT SIMPSON AND CATE GARY

표지
NESSKAIN

그래픽 디자이너
JOHN J. HILL

크리에이티브 자문
CHRIS METZEN, ALEX AFRASIABI, CHRIS ROBINSON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JUSTIN PARKER, EVELYN FREDERICKSEN

프로듀서
RACHEL DE JONG, MICHAEL BYBEE, JEFFREY WONG

글로벌 라이센싱 선임 매니저
BYRON PARNELL

블리자드 스토리 및 크리에이티브 개발 디렉터
JAMES WAUGH

BLIZZARD ENTERTAINMENT

©2016 Blizzard Entertainment, Inc.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에게 있습니다. Legion은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이며, World of Warcraft와 Warcraft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 입니다.

아들아. 끔찍한 어둠이 우리 세계로 돌아왔다.
다시 한 번 우리 전쟁에 나선다.
또다시, 영웅들이 죽을 것이다.
예전처럼 우리가 아끼는 것들을 모두 말살하려고
우린 끊임없이 밀려드는 악에 수없이 맞섰다.
그러나 모든 승리엔 피와 희생이 뒤따랐고, 더 끔찍한 공포로 이어질 뿐이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영원한 평화를?
할 수 있다.
아버지, 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왕이 되던 그날부터 내내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싸우러 간다...
스톰윈드 왕궁. 현재.
...설령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전사하셨다.
또 하나의 생명이 군단의 손에 사라졌다. 이게 마지막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전쟁을 끝내려면 더 많은 생명이 사라질 것이다.
전쟁이 끝날 수 있다면.

이제는 내가 국왕이다.
백성들을 악마에게 맞서는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내 의무다.
어린 시절 내가
꿈꾸던 왕의
일은 아니지만.
국왕 폐하...
... 부서진 섬에서 긴급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끼이이이익
좋은
소식이면
좋겠군.
물론입니다,
린 국왕 폐하.
전쟁이 끝난
모양입니다...
음?
... 네 전쟁은
말이지!
난 수많은
왕국이 불타는
걸 보았다...
...배신도
겪었고...

구... 국왕 폐하?
괜찮... 으십니까?
와지군
난 괜찮다. 고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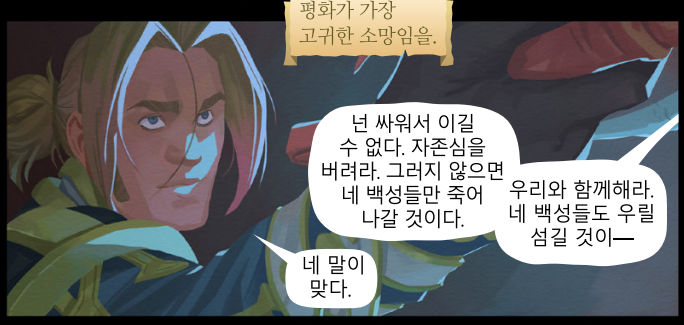
왕궁을 샅샅이 수색해라. 이 녀석이 혼자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나...
이건 명령이다, 리버스 대장. 이 녀석은 내게 맡겨라.
... 네, 린 국왕님.
말해라.
군단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거지?
끼이이익
얼라이언스는 지도자가 하나둘 죽는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네 말이 맞다. 무너지진 않아.
이미 무너졌으니까. 늑대는 죽었다. 네 "얼라이언스"도 곧 그 뒤를 따를 거다.
늑대라고?
우리 **아버님** 말이냐?
넌 우리의 결의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구나.
우린 **모든 걸** 알고 있다.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바리안 린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도. 넌 늑대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처음부터 그랬지.
군단은 **모든 걸** 지켜본다.

네가 계속해서 아비를 실망시켰던 모습도 지켜봤다.
늑대는 강인한 전사를 길러내려 했지.
한 평생 나는 칼에 기대어 살았다.
그렇지만...
... 네 아비가 길러낸 건 **약골이었다.** 이 세계가 **결코** 볼 일이 없을 평화를 꿈꾼 바보였지.
게다가 네놈은 네 **아비마저** 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너에게서 인내와...
넌 그의 적과 친구가 되었고,
...관용과...
...신뢰를 배웠다.
네 아비의 앞을 가로막았다.
늑대에게 **목줄을** 채운 거지.

하지만 너도 이젠 진실을 보았겠지.
넌 전사의 길을 그 잘난 말로 대신하려 했지만, 거의 죽을 뻔했다.
네 아비의 방식을 배우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

네 **아비도** 우리 손에 쓰러졌다. **네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전쟁은 네 얼라이언스를 파멸로 이끌 거다, 꼬마야.

그렇지만 방법이 하나 있다.
네가 추구하던 그 길이다.
안두인, 이젠 너처럼 나도 믿는다...
평화다.


평화가 가장 고귀한 소망임을.
넌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자존심을 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네 백성들만 죽어 나갈 것이다.
우리와 함께해라. 네 백성들도 우릴 섬길 것이—
네 말이 맞다.

뭐라고?
네 말이 맞아. 난 평화를 원하고,

허나 평화를 지키려면...
늑대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다.
내가 이 세상에 남은 **빛이다.**

...목숨을 던져 싸워야 한다!

그리고 내가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래, 난 아버지를 바꿨다.
그러나 아버지도 나를 바꿨다.
얼라이언스를 구할 수 있을까? 아제로스를?
구해야만 한다.
우린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언젠가는.

여러 해가 지난 후…
준비됐어요, 아버지.
단 한 번의 전투만 남았습니다.
승리든 패배든, 모든 건 오늘 끝납니다.
린 국왕, 시간이 됐네.
공격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을 걸세.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없을 테고.
기회는 이번 한 번이면 됩니다.
아버지를 위해… 쓰러져 간 수많은 이들을 위해…
오늘, 빛은 어둠에 맞서 승리할 걸세.
시작합시다.
끝